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1076@kiwoom.com



미 증시, 대선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ISM 서비스업 PMI 호조에 상승

미국 증시 리뷰

5일(화) 미국 증시는 미 대선 디데이에 진입한 가운데 대선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 유입, ISM 서비스업 PMI 호조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 등에 영향을 받아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1.02%, S&P500 +1.23%, 나스닥 +1.43%)

미국 10월 ISM 서비스업 PMI는 56.0을 기록하며 컨센서스(53.8)와 전월치(54.9)를 모두 상회, 4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며 확장세 지속.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용지수는 전월 48.1 → 53.0으로 상승, 공급업체 배송지수는 전월 52.1 → 56.4로 상승. 기업 활동 지수는 전월 59.9 → 57.2, 신규 주문지수는 전월 59.4 → 57.4로 하락,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50선 상회하며 확장세 지속. 한편, 같은 날 발표된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또한 55.0을 기록하며 서비스업황 호조세는 지속. 집계측에 따르면, 미 서비스업 부문은 제조업 부문의 약세를 상쇄하고 4분기 초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9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84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9.2% 급증, 30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 기록.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올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696억달러 상승하며 11.8% 상승. 미국의 9월 수출은 전월 대비 1.2% 감소한 반면, 수입은 전월 대비 3% 상승. 이는 10월 초 예정되었던 미 항만노조 파업을 앞두고 연말 시즌 전에 소비재 수입의 급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중국의 10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2.0을 기록하며 전월치(50.3)와 컨센서스(50.5)를 모두 상회, 중국 서비스업황은 22개월 연속 확장 국면 지속.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견고한 신규 수출 주문과 더불어 비즈니스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 또한, 향후 생산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내 서비스업체들은 고용도 늘리는 모습.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애플(+0.65%), 마이크로소프트(+0.73%), 알파벳(+0.3%), 메타(+2.1%), 아마존(-1.9%), 테슬라(+3.54%), 엔비디아(+2.84%) 등 M7 종목 전체 상승.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경소비재(+1.8%), 산업재(+1.7%), 유틸리티(+1.5%)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모습.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대선의 당선 유권은 7대 경합주(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몬타나, 네바다, 애리조나, 텍사스)의 개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발표하는 Real Clear Politics(이하 RCP)에 의하면, 전세 선거인단 538명 중 해리스가 211명, 트럼프가 219명, 경합주 및 부동층 108명으로 집계. 두 후보중 270석 이상 과반수를 확보해야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기에, 경합주 및 부동층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오느냐가 관건.

이번 대선은 1) 집계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전 투표율 상승(전체 유권자의 약 30%), 7대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접전 등을 감안했을 때, 평년 대선때보다 당선자 유권이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16년과 '20년 대선 당시에는 국내 증시 오후 장부터 대선 유권이 드러나 주가에 반영).

또 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주요 모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 일례로 5일 기준 이코노미스트의 모델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승률이 56대 43으로 기세가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으나, 네이트 실버의 모델에서는 해리스(50.01%)가 트럼프(49.99%)로, 538의 모델에서도 해리스(50%)가 트럼프(49%)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

주 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물이 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득표 차이가 1.0%이하를 기록할 시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검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샘플을 복잡하게 만들 소지(경합주인 애리조나는 1.0%p 이하, 펜실베이니아는 0.5%p 이하, 오하이오는 0.25%p 이하 등). 그러나 실제로 대선, 중간선거, 주지사 등 주별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재검표까지 이어졌던 사례는 1% 미만이었으며, 재검표 이후 결과가 바뀌었던 사례도 1% 미만이었음을 감안 시 재검표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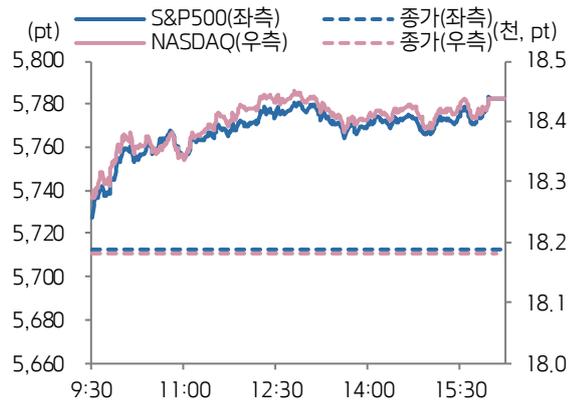
정리해보면, 당선자 유권이 나올 때까지 이전 대선에 비해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재검표 혹은 대선 결과 불복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수일 이상 장기화될 여지는 낮은 전망. 결국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조지아주부터 시작하는 7대 경합주 개표 결과에 주목하면서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오전 10시에, 가장 늦게 발표되는 네바다는 오후 12시에 발표될 예정).

다만, 7대 경합주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선자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트레이드(달러 강세, 비트코인 강세, 친환경주 약세, 자동차주 약세 등)와 해리스 트레이드(달러 약세, 친환경주 강세, 에너지주 약세 등) 간에 주도권이 수시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미국 선물 시장, 채권 및 외환시장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

전일 국내 증시는 직전일 금투세 폐지 발 주가 급등에 따른 중소형주들 차이실현 물량 출회, 미국 대선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대형주 약세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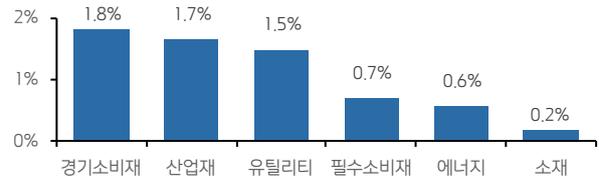
금일에는 장 초반부터 미국 대선 개표 및 출구조사 관련 뉴스플로우에 영향을 받으면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수혜 업종 및 종목간 수급 로테이션이 종종 빈번하게 나타나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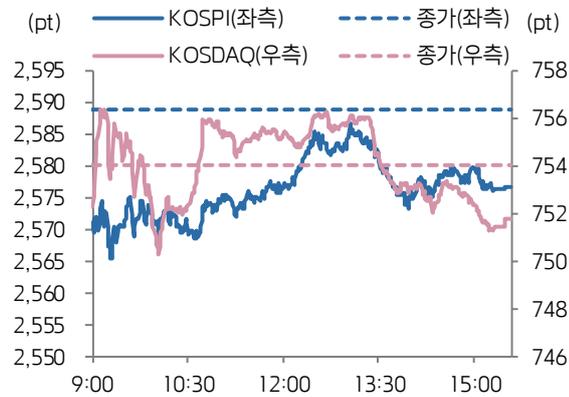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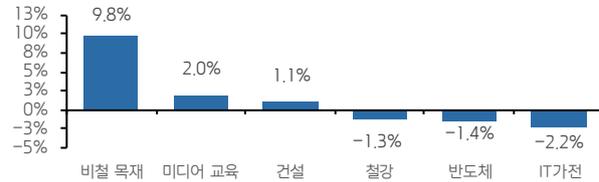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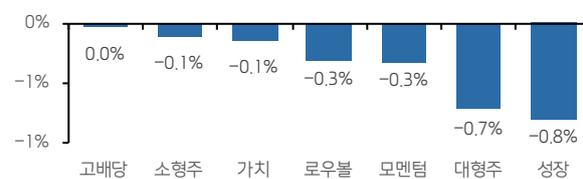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23.45	+0.65%	+16.5%	GM	53.70	+3.67%	+50.71%
마이크로소프트	411.46	+0.73%	+10.02%	일라이릴리	806.06	-0.01%	+38.95%
알파벳	169.74	+0.3%	+21.81%	월마트	83.68	+1.49%	+60.79%
메타	572.43	+2.1%	+62.21%	JP모건	221.49	+0.78%	+33.32%
아마존	199.50	+1.9%	+31.3%	엑손모빌	118.96	+0.3%	+22.04%
테슬라	251.44	+3.54%	+1.19%	세브론	153.41	-0.36%	+6.2%
엔비디아	139.91	+2.84%	+182.58%	제너럴일렉트릭	83.68	+1.5%	+60.8%
브로드컴	173.90	+3.17%	+57.47%	캐터필러	383.37	+1.82%	+31.74%
AMD	141.66	+0.68%	-3.9%	보잉	151.00	-2.62%	-42.07%
마이크론	105.49	+3.7%	+23.98%	넥스트에라	78.65	+0.4%	+32.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76.88	-0.47%	-2.95%	USD/KRW	1,379.30	+0.35%	+7.09%	
코스피200	341.47	-0.62%	-4.61%	달러 지수	103.41	-0.45%	+2.05%	
코스닥	751.81	-0.3%	-13.24%	EUR/USD	1.09	+0.48%	-0.99%	
코스닥150	1,294.29	-0.83%	-7.12%	USD/CNH	7.10	-0.15%	-0.34%	
S&P500	5,782.76	+1.23%	+21.24%	USD/JPY	151.62	-0.34%	+7.5%	
NASDAQ	18,439.17	+1.43%	+22.83%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2,221.88	+1.02%	+12.03%	국고채 3년	2.917	-1.5bp	-22.8bp	
VIX	20.49	-6.78%	+64.58%	국고채 10년	3.075	-2bp	-10bp	
러셀2000	2,260.84	+1.88%	+11.53%	미국 국채 2년	4.177	+1.7bp	-7.3bp	
필라. 반도체	5,057.83	+1.69%	+21.13%	미국 국채 10년	4.271	-1.4bp	+39.2bp	
다우 운송	16,571.91	+1.74%	+4.23%	미국 국채 30년	4.435	-3.2bp	+40.7bp	
상해종합	3,386.99	+2.32%	+13.85%	독일 국채 10년	2.425	+3bp	+40.1bp	
항생 H	7,556.62	+2.56%	+3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9,476.63	+0.88%	+10.02%	WTI	71.99	+0.73%	+2.4%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5.53	+0.6%	-1.96%
Eurostoxx50	4,870.33	+0.38%	+7.72%	금	2,749.70	+0.13%	+27.3%	
MSCI 전세계 지수	834.94	-0.03%	+14.85%	은	32.78	+0.51%	+36.07%	
MSCI DM 지수	3,656.14	-0.11%	+15.37%	구리	447.50	+0.98%	+15.02%	
MSCI EM 지수	1,129.82	+0.67%	+10.36%	BDI	1,374.00	-0.29%	-34.38%	
MSCI 한국 ETF	61.12	+0.36%	-6.73%	옥수수	418.50	+0.48%	-16.8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2.25	+0.62%	-14.46%
비트코인	69,162.79	+3.1%	+62.71%	대두	1,003.50	+0.63%	-19.9%	
이더리움	2,415.43	+1.9%	+5.83%	커피	249.40	+1.82%	+31.26%	

2024년 11월 6일

KIWOOM DAILY 투자전략/시황 **한지영** 시황/ESG **이성훈**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